



Teen STAR

아홉 번째 만남

알성달

원하지 않았던 삶의 이야기



이번 만남은 18세에 동네의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한 여성(연진, 가명)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진 씨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임신하게 된 연진 씨는 남자의 집에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진 화냥년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연진 씨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집으로 보내졌는데 그 집은 처녀가 애를 갖는 것이 그렇게 죽을죄가 되지 않는 술집이었고 그 친척은 술집의 포주였다고 합니다.

이미 임신 8개월인 연진 씨는 아이를 지우려고 병원에 갔지만, 위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요.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의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 낳아 주면 잘 키우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기 아이를 남의 손에 키우는 것보다는 낳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결국 아이를 유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친척집 앞 봉숭아 밭에 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의 그 남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봉숭아 밭에 가서 땅을 파고 죽은 아이를 꺼냈습니다. 땅을 파고 꺼낸 그 아이, 땅에 묻고는 단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고 지금까지도 연진 씨는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복수하고 죽을 결심으로 아이를 라면상자에 넣어 그것을 들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받았지만, 오징어가 상한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며 고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집은 결혼식 준비로 손님이 많이 와 있었고, 연진 씨는 그 남자의 어머니에게 상자를 건네며 선물이니깐 열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열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이를 자기 손으로 묻고 또 파내어 끔찍한 모습을 보았던 연진 씨는 그 순간 자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던 연진 씨는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갔고 그 뒤에 폭행, 절도, 사기, 마약 등의 죄목으로 교도소를 네 번이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진 씨가 이런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꺼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총체적인 우리의 몸

당시 18세의 연진 씨는 아직 십대 소녀였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는 성숙하여 임신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의 그림에서처럼 신체적인 면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몸이 담고 있는 또 다른 면(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이성적인 면, 영적인 면)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연진 씨의 별

그럼 이제 이 다섯 가지 면을 가지고 연진 씨의 별을 한 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신체적인 특징과 발달이 두드러지고 건강한 18세 연진 씨의 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아이를 임신한 연진 씨는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어떤 손길도 기대하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런 연진 씨를 가족과 세상은 어떻게 대했나요?

가장 좋은 것은?

그렇다면 이제 연진 씨의 별을 통해 우리의 몸이 지닌 또 다른 면들을 짚어보기로 해요.

연진 씨의 정서적인 면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이해받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몹시 불안하고 사회적인 면에서 바라본 연진 씨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동네 오빠의 무책임 앞에 배신감과 불신감도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런 순간에 가장 커다란 용서와 연민으로 받아들임을 보여 줬어야 할 가족조차도 오히려 연진 씨를 밀어냈으니 깨어진 가족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무책임한 오빠에 대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 하고 뒤늦은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면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새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연진 씨가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두 사람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두 남매가 만나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되면서 성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어떻게 쓰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위해 가장 '좋게' 쓰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그리고 헌신과 서약 안에서 사랑에 대해 깊고, 넓게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연진 씨의 영적인 면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



이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남기게 됩니다.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줬더라면 자신과 새 생명을 위해 또 다른 최선의 방법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물론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가며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틴스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의 과정 안에서 몸이 지닌 여러 면을 짚어 보면서 정말 무엇 하나 소홀히 다루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몸이 지닌 여러 면 안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또 행동하게 된다면 분명 나 자신을 잘 사랑하여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삶'으로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지혜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 면이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넘쳐나게 내버려 둔다면 나의 삶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몸으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것을 향해가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영이 사건, 그 후...

2008년 12월 어느 날 8세 여자아이의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8세 여자아이가 등 골길에 조두순이라는 남자에게 납치된 뒤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먹으로 여자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빨 자국까지 남기고는 변기에 밀쳐 넣은 뒤 목을 졸라 살인시켰고, 이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훼손됐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배변 주머니를 떼는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가 회복해가는 소식에 함께 기뻐했고, 그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해 오랜 세월



앓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기자의 취재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약 1년쯤의 세월이 지난 뒤의 취재였습니다.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 아이는 자기의 주치의의 한 번 보더니 '의사요!' 하면서 '제가 아파 봤기 때문에 아픈 친구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안쓰럽게만 느껴졌던 나의 마음은 그래!! 참 행복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달린 것이로구나. 이 꼬마 아이가 자기 꿈을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준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 건수가 2002년 9,435건에서 2008년에는 1만 5,094건으로 6년 사이 60% 넘게 급증했다고 하는데, 통계로 본다면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도 합니다. 자살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대폭으로 증가하여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자는 10만 명당 31명 정도로 자살의 원인조차 모르는 경우가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희망의 길, 행복 = 사랑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빛이 되어 희망의 길을 보여 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신 분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하느님을 향한 오묘한 헌신 속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풀 마더 데레사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 우리에게 사랑과 응서의 덕을 보여 주시며 평화를 위해 일하신故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웃에 대한 많은 연민을 가지고 먼 이

국땅에서 온몸을 다해 봉사한故 이태석 신부님... 이런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미덕을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회를 넘어 온 세상을 좀 더 선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때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그분들의 믿음과 실천은 결국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과 응서, 겸손과 헌신, 신의와 인내, 자비와 연민, 회개와 화해라고 하는 미덕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하는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좋아서 한다거나, 즐거워서 한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 '좋다'라는 말 속에는 '행복하면서도 선(善)과 일치한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나 봅니다.

결국 틴스타가 우리 CUM 친구를 '좋은' 성교육으로 초대하는 이유도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주변에 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있나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보기로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선'이라고 하는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잘 보여 주고 있고, 이웃 봉사로 그 사랑을 잘 전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닳고 닳은 정도로 행복해 보입니다.

Cum 김혜정 베로니카(한국틴스타 교사)